

# 청도 지역어의 ‘ㅂ, ㅅ, ㄷ’ 불규칙 어간

- 풍각면과 운문면을 중심으로 -

김세환\*

|| 차례 ||

- I. 서론
- II. 청도 지역어의 음운적 특징
- III. ‘ㅂ, ㅅ, ㄷ’ 불규칙 용언 어간
  - 3.1. ‘ㅂ’ 불규칙
  - 3.2. ‘ㅅ’ 불규칙
  - 3.3. ‘ㄷ’ 불규칙
- IV.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청도군의 서부 풍각면과 동부 운문면의 ‘ㅂ, ㅅ, ㄷ’ 불규칙 어간 기저형의 지역적 차이와 변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ㅂ’ 불규칙 어간은 두 지역에서 단일 기저형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깝-’의 경우만 기저형의 차이가 존재한다. ‘ㅅ’ 불규칙 어간은 서부에서는 /X<sup>ㅅ</sup>-/으로 존재하고 동부에서는 /X<sup>ㅅ</sup>-/의 단일 기저형으로 존재한다. 다만, ‘잇-, 繼’의 경우, 서부에서는 /이꾸-/로, 동부에서는 /이수-/로 존재하는바, 이는 ‘잇-’이 ‘-고’와 결합한 ‘이꼬’를 재분석한 것으로 보았다. ‘ㄷ’ 불규칙은 두 지역에서 모두 복수 기저형 /X(ㄷ-르)-/로 존재하였다. 다만, ‘깨달-’의 경우 패러다임 간 유추로 인하여 서부에서 /깨다리-/로, 동부에서 /계달리-/로 나타난다. 세 불규칙 어간 중에서 ‘ㅅ’ 불규칙 어간이 서부와 동부의 기저형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청도 지역어, ‘ㅂ’ 불규칙, ‘ㅅ’ 불규칙, ‘ㄷ’ 불규칙, 복수 기저형, 불규칙 어간

## I. 서론

이 글은 경북 청도군의 서부 지역인 풍각면과, 이서면, 그리고 동부 지역인 운문면에 나타나는 불규칙 용언의 기저형 차이를 논의하여 청도 지역 내의 불규칙 어간의 방언 차이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저형의 변화는 모든 용언 어간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불규칙 용언 어간의 경우 그 불규칙적인 교체로 인하여 더욱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듯하다. 물론 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 불규칙이 규칙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아니다.

- (1) 가. 덩고, 더우니, 더워  
나. 흘르고, 흘르니, 흘러

(1)은 중부 방언의 불규칙 활용 어간의 활용형을 보인 것으로 (1가)는 ㅂ-불규칙 어간, (1나)는 ㄹ-불규칙 어간의 활용형이다. (1가)는 ㅍ의 변화로 인하여 불규칙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1나)는 아-계 어미 결합형인 ‘흘러’를 ‘흘르-+-어’로 재분석한 뒤 ‘호르-/흘르-’의 복수 기저형이 평준화를 겪어 ‘흘르-’가 된 것이다. 그래서 ‘덩-’은 복수 기저형 ‘덩-/더우-’로 남아 있고, ‘호르-’는 단일 기저형 ‘흘르-’로 남아 있다. 음변화에 의한 것이든, 재분석에 의한 것이든 평준화에 의한 것이든 간에 불규칙 어간은 재구조화를 활발히 겪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어 내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재구조화를 겪는 요인이나, 변화 단계의 차이로 인하

여 청도 지역어 내 서부와 동부의 ‘ㄴ, ㄷ’ 불규칙 어간의 기저형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주된 비교 지역은 서부 지역의 경우 풍각면이며, 동부 지역은 운문면이다. 이 글에서는 신승원 외(2017)에서 조사된 풍각면과 운문면의 자료를 주 자료로 하고, 이서면의 자료를 참고한다. 또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국립국어원(2008)의 자료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sup>1)</sup>



〈청도군 지도〉

1) 신승원 외(2017: 150-164)에 제시된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풍각면 금곡리 임병쾌(74세, 무학, 국문 해독, 주제보자)  
 풍각면 차산리 정병철(80세, 초졸, 보조제보자)  
 이서면 수야리 박영환(70세, 중졸, 한문해독, 주제보자)  
 이서면 수야리 박희준(81세, 중졸, 한문해독, 보조제보자)  
 운문면 공암리 변태복(86세, 초졸, 주제보자)  
 운문면 봉하리 김성달(76세, 초졸, 한문해독, 보조제보자)

청도군에 대한 개관은 신승원 외(2017)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대략적인 특징만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청도군은 경상북도의 남단에 위치하며 위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북 경산시와 인접하고, 아래로는 경남 창녕군, 경남 밀양시, 경남 양산시와 인접한다. 동쪽으로는 경북 울주군, 경북 경주시와 인접하며 서쪽으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남 창녕군과 인접하고 있다.

청도 지역어에 대한 연구로는 청도군의 6모음 체계를 논의한 권재선(1981)이 있다. 이정일(1995)에서는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보이는 음운 현상을 논의하였으며 이정일(1999)에서는 청도 지역의 성조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무식(2008)은 청도군 각북면의 음운, 어휘, 문법 항목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보고서이다. 신승원 외(2017)은 청도 지역어의 음운, 어휘, 문법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이다. 특히 음운 부문에서는 음운 목록, 기저형, 공시적인 음운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여 이 지역어의 종합적인 음운론 연구가 가능해졌다.

## 2. 청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특징

청도 지역어의 음운 목록, 어간의 기저형, 공시론적인 음운 과정 등은 신승원 외(2017)에 자세히 연구되어 있다. 이 글은 이 지역어에서 보이는 몇몇 음운론적인 특징들을 간략히 언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의 불규칙 어간의 차이를 논의하고자 한다.

청도 지역은 최명옥(1998: 414-417)에 의하면 경북중동부의 동부 방언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들 지역은 ‘\*j<sub>l</sub>(ㄹ)’의 변화 유형을 공유하는바, ‘겨드랑’에 대하여 ‘자드랑, 자트랑’으로 나타난다.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하여서는 ‘흙(土)과 관련하여 ‘후’ 또는 ‘흙’으로 나타났다. 어간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어간 ‘바꾸-(換)’는 어간말음으로 후음을 지닌 ‘바꿨-’로 나타났다. 움라우트는 적용되지 않는 유형이 주로 나타나며, 성조 유형으로는 ‘걸리고[LH·LL]’ 형이 나타났다. 어휘에서는 ‘수수’에 대하여 ‘수끼, 수꾸’로 나타나며 어법에서는 종결어미 ‘-습니다’에 대하여 ‘-니이더’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을 공유하는 것을 방언 구획의 근거로 삼고 각각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청도는 인접한 ‘경산, 경주’와 함께 경북중동동부방언에 속하게 된 것이다.

청도 지역은 낙동강 동안에 위치한 일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ㅍ’이 자음 목록에 없으며, 모음으로는 ‘애:애’, ‘으:어’의 구별이 없어 6모음을 유지하고 있다. 성조는 고조, 저조, 상승조, 하강조가 존재한다.

이 지역어에서 보이는 특이한 음운현상으로 모음의 완전순행동화가 적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모음의 완전순행동화는 국어의 하위 방언에서 보편적인 음운 현상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어간말이 ‘이’인 환경에서 경구개음을 어간말음절의 두자음(頭子音)으로 하는 1음절 어간과 ‘이-’(載)를 제외하고, 어간말음절의 두자음(頭子音)의 종류, 어간의 음절수와 관계없이, 어미 ‘-어’와의 결합에서 대부분 완전순행동화가 이루어진다.<sup>2)</sup>

(2) 가. 피--+어라→피래[FL](피-, 伸)

나. 기--+어라→기래[RL](기-, 匍)<sup>3)</sup>

2) 경구개음으로 시작하는 1음절 어간의 경우에도, ‘짓다’에 해당하는 이 지역어인 ‘짱-, 作’은 ‘지래[FL] 또는 ’저래[FL]로 나타나고, ‘쥐다’에 해당하는 이 지역어인 ‘지-, 握’의 경우, ‘지래[FL]로 나타나고, ‘(안개)가 끼다’에 해당하는 ‘찌-’의 경우, ‘찼때[FL]로 나타난다. 이들의 공통점은 성조가 하강조라는 점이다.

3) 신승원 외(2017)에는 ‘기래[HHLL]’로 제시되어 있는바, 완전순행동화에 의하여 연속된 모음이, 음장 방언에서는 장음으로, 성조 방언에서는 상승조 또는 하강조 등으로 나타난다고 보아 2음절의 상승조로 제시하였다.

- 다. 지--+어라→저라[HH](지-, 負)  
 라. 이--+어라→이러[FH](이-, 蓋)  
 cf. 이--+어라→여라[HH](이-, 載)<sup>4)</sup>

- (3) 가. 비비--+어라→비비라[HLL](비비-, 擦)  
 나. 땡기--+어라→땡기라[HLL](당기-, 引)  
 다. 곤치--+어라→곤치라[HLL](곤치-, 改)  
 라. 모이--+어→모이[LF](모이-, 集)

(2)는 ‘이’로 끝나는 1음절 어간이다. 어간말음절의 두자음(頭子音)이, (2가)는 양순음, (2나)는 연구개음, (2다)는 경구개음, (2라, 2cf)는 Ø인 경우이다. 이들 중 (2다, 2cf)를 제외하고는 모두 완전순행동화를 보인다. (3)은 ‘이’로 끝나는 2음절 어간이다. 어간말음절의 두자음(頭子音)이 (3가)는 양순음, (3나)는 연구개음, (3다)는 경구개음, (3라)는 Ø인 경우이다. (3)에서는 모두 모음의 완전순행동화를 겪은 활용형만 나타남을 알 수 있다.<sup>5)</sup> 이는 정승철(2008: 107)에서 지적하였듯이 경남에서 북상한 완전순행동화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지역은 경남과 인접한, 경북의 최남단에 위치한다.

원순모음화와 관련하여, 이 지역어가 특이한 점은 모음 체계와 원순모음화의 적용 시기의 상이에 따라 원순모음화가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넘-(越)’에 대하여 서부의 풍각면에서는 ‘너무마[HLL]’로 나타나고, 동부의 운문면에서는 ‘너머마[HLL]’로 나타난다. 두

4) ‘이-(載)’의 경우에는 ‘여라[HH]’로 활용한다.

5) 물론 임석규(2007/2010)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음절어라 할지라도 ‘자빠#지-’의 구성 등은 어간의 내부 구성이 단음절과 유사하여, 이 지역어에서도 ‘자빠지--+었다 →자빠절따’로 나타난다.

활용형의 차이는 형태소 경계에서 적용되는 원순모음화의 적용 차이로 해석되는데, 서부의 풍각면에 나타나는 ‘너무마[HLL]’는 ‘으:어’의 대립이 유지될 당시에 원순모음화가 적용된 것이고, 동부의 운문면에 나타나는 “너머마[HLL]”는 ‘으:어’ 대립이 유지될 당시에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으:어’의 대립이 사라지면서 ‘-으마>어(으)마’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때에는 더 이상 원순모음화가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져 현재와 같은 활용형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으로 이 지역어의 음운론적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 보았다. 이들은 지역 내의 서부와 동부에서 나타나는 불규칙 어간의 기저형 차이를 논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다. 아래 3장에서는 ‘ㅂ, ㅅ, ㄷ’ 불규칙 어간의 활용형을 바탕으로 서부와 동부의 기저형 차이를 논의한다. 조사된 자료를 검토한 후 대표적인 몇몇 어간의 활용형을 제시함으로써 두 지역의 기저형 차이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 Ⅲ. ‘ㅂ, ㅅ, ㄷ’ 불규칙

#### 3.1. ‘ㅂ’ 불규칙

ㅂ-불규칙 용언 어간은 대부분 단일 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는 활용형을 보여 준다.

- (4) 가. 곱따[RH], 고부마[RHL], 고버라[RHL](곱-, 麗)(풍)<sup>6)</sup>  
 나. 곱따[RH], 고버마[RHL], 고버라[RHL](운)<sup>7)</sup>

6) ‘풍’은 서부의 풍각면, ‘운’은 동부의 운문면, ‘이’는 ‘이서면’을 가리킨다.

(4)는 ‘곱-, 麗’의 활용형으로, (4가)는 서부 풍각면, (4나)는 동부 운문면의 활용형을 보인 것으로, 단일 기저형 /곱-/을 설정할 수 있다. 두 지역의 활용형의 차이는 2장에서 살펴 본 원순모음화의 적용 여부에 있다. 즉 (4가)의 ‘고부마[RHL]’는 6모음 체계 이전에 ‘으:어’가 대립하던 시기에 형태소 경계에서 양순음 뒤 ‘으’가 원순모음화를 겪은 활용형이며, (4나)의 ‘고버마[RHL]’는 ‘으:어’가 대립하던 시기부터 쪽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가, 이후 ‘으:어’ 대립이 사라진 후 두 음운이 합류하면서 원순모음화의 적용 환경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sup>8)</sup> 이 변화를 제외한다면 두 지역의 ㅂ-불규칙 용언 어간은 모두 단일 기저형 /곱-/으로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대부분의 ㅂ-불규칙 어간은 이 지역어에서 지역적 차이가 거의 없이 ㅂ-말음을 지닌 단일 기저형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다음에 제시될 어간 ‘가깝-, 近’은 지역적인 차이가 난다.

- (5) 가. 가죽때[LHL], 가주거매[LHLL], 거주거도[LHLL](풍)  
 나. 가참때[LHL], 가차우매[LHLL], 가차위도[LHLL](운)

(5)는 ‘가깝-, 近’의 활용형을 나타낸 것으로, (5가) 서부 풍각면의 경우는 단일 기저형 /가죽-/을 설정할 수 있고 (5나) 동부 운문면의 경우는 복수 기저형 /가차{ㅂ-우}-/를 설정할 수 있다. (5가)의 ‘가죽-’과 관련하여 중세 국어에 ‘갓잡-’이 있는데, 이 ‘갓잡-’은 이승재(1983/1991: 16), 송철

7) 이 지역어의 활용형은 으:어 대립이 없어 ‘-넌다(-는다), -어매(-오매)’로 나타난다.

8) 심사위원으로부터 이러한 설명의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받았다. 통시적인 자료의 미비로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으:어’의 대립이 이 지역어에도 있었기 때문에 ‘출다’에 ‘-오매’가 결합된 것은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어 ‘추부매’로 나타나고, ‘-어도’가 결합된 것은 ‘추버도’와 같이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역어에도 ‘으:어’의 대립이 있었고, 그때 ‘-으’ 앞에서만 원순모음화가 적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의(1977: 45, 50), 구분관(1998: 215)을 종합하여 볼 때, ‘\*가즈기-’에 ‘-알-’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역어의 ‘가죽-’과 관련하여 ‘-알-’이 결합되지 않은 재구형 ‘\*가죽’은 어근이므로 어간 ‘가죽-’이 되기 어렵다. 이 글에서 어간 ‘가죽-’은 김세환(2012: 67)에 따라 ‘가죽-’이 ‘가죽ㅎ-’에서 ‘ㅎ-’가 생략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어근 ‘\*가죽’의 제2음절은 ‘으>으>우’와 같은 변화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고, ‘X하-’에서 ‘하-’가 생략된 어형이 각 방언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5나)의 ‘가참-’은 재구형 ‘\*가죽’에 ‘-알-’이 결합된 어형 ‘\*갓갓-’에서 ‘ㄱ>ㅎ’ 약화를 겪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어간말은 ㅂ-불규칙의 일반적인 변화를 겪은 것이므로 복수 기저형으로 설정이 가능하다.<sup>9)</sup>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위 ㅂ-불규칙 어간에 대응되는 어간은 이 지역에서 서부와 동부에서 모두 ㅂ-규칙 어간으로 존재한다. ‘가깎다’의 경우에만 서부에서 단일 기저형 /가죽-/으로, 동부에서 복수 기저형 /가차 {ㅂ-우}-/로 존재한다.

### 3.2. ‘ㅅ’ 불규칙

ㅅ-불규칙은 앞서 살펴 본 ㅂ-불규칙 어간과는 달리 서부의 풍각면과 동부의 운문면에서 대부분의 어간이 기저형 차이가 난다. 기저형에서 차이가 나는 양상도 다양하다. ㅅ-불규칙 어간은 어간말 음소로 ‘ㅇ’을 인정하게 되면 단일 기저형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양 지역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기저형이 존재하므로, 어간의 모음이나, 어간말 자음 등의 차이에 대하여서도 논의할 것이다.

9) 《자료집》에 의하면 ‘가죽-’과 관련된 어형 ‘가직-, 게직-, 개작-, 계직-, 계죽-’ 등이 동남방언에 주로 나타나며, ‘가참-’은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 (6) 가. 난넨대[RHL], 낙꼬[RH], 나매[FL], 남때[FL](낫-, 愈)(풍)  
 나. 난넨대[RHL], 낙꼬[RH], 나서매[HLL], 나설때[HLL](운)

(6)은 ‘낫-, 愈’에 해당하는 어간의 활용형을 제시한 것으로 (6가)는 서부 풍각면의 자료이고, (6나)는 동부 운문면의 자료이다. (6가)는 활용형을 볼 때 단일 기저형 /냥-/으로 설정할 수 있을 듯하며, (6나)는 단일 기저형 /낫-/으로 볼 수 있다. 즉, 두 지역 모두 단일 기저형으로 존재하나 서부는 ‘△>∅’의 변화와 기저형의 수가 줄어드는 평준화에 의하여 /냥-/이 된 것으로 보이고, 동부는 ‘△>ㅅ’의 변화에 의하여 현재의 기저형 /낫-/이 된 듯하다.

- (7) 가. 절떠래[RHL], 저매[FL], 저래[FL](짓-, 作)(풍, 운)  
 cf. 질떠래[RHL], 지매[FL], 지래[FL](이)

(7가)는 ‘짓-, 作’의 활용형을 보인 것으로, 풍각면과 운문면에서 모두 위와 같은 활용형이 나타난다. (6)에서 제시한 /냥-/과 마찬가지로 ‘△>∅’의 변화와 평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간 모음의 변화가 하나 더 적용되었다. 아-계 어미 결합형 ‘저래[FL]’를 ‘짙--+어라’가 아닌 ‘짙--+어라’로 재분석한 후, 평준화에 의하여 단일 기저형 /짙-/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경구개음+이’로 이루어진 어간이 ‘경구개음+어’로 재구조화되는 지역은 경북의 서부인바, 이 지역어 자체적인 변화로 보기 보다는, 인접 지역에서 일어난 재분석에 의한 변화가 이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가)의 기저형 /짙-/이 이 지역어의 자체적인 변화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7cf)와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7cf)는 ‘짓-, 作’의 이서면 자료로서,

활용형 ‘지라[FL]’를 (7가)의 풍각면, 운문면 자료 ‘저라[FL]’와 비교하여 보면, 모음의 완전순행동화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완전순행동화는 이 지역어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장-/>/정-/과 같은 기저형의 변화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무리일 듯하다. 물론 ‘지-, 負’의 경우 아-계 어미 결합형이 ‘저라’로 나타나, 완전순행동화가 강력히 적용되는 상황에서 ‘경구개음+어’로 재분석하여 기저형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듯하다.

다음으로 ‘잇-, 連’의 경우를 보면 서부의 풍각면, 동부의 운문면에서 기저형이 차이가 나며, 풍각면에 인접한 이서면에서도 이들과 또다른 기저형을 설정해야 각 지역의 활용형을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아래의 자료를 보자.

- (8) 가. 이꾼대[LFL], 이꾸고[LFL], 이꾸매[LFL], 이까래[LFL](잇-, 連)  
 (풍)  
 나. 이순대[LFL], 이수고[LFL], 이수매[LFL], 이사래[LFL](운)  
 다. 이꾼대[LFL], 이꾸고[LFL], 이꾸매[LFL], 이꼬래[LFL](이)

(8)은 ‘잇-, 連’의 활용형으로서 (8가)는 풍각면, (8나)는 운문면, (8다)는 이서면의 자료이다. 중부 방언에서 불규칙 활용을 하던 ‘잇다’는 단일 기저형 /잉-/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8가)의 풍각면 자료는 활용형을 볼 때 단일 기저형 /이꾸-/를 설정할 수 있다. 대체로 이 지역어에서 2음절의 우-말음 어간은 ‘키우--+아라→키아라[HLL]’와 같이 어미 ‘-아/어’ 중에서 ‘-아’를 취하기 때문에 아-계 어미 결합형도 단일 기저형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8나) 운문면의 활용형은 (8가)의 기저형을 단일 기저형으로 설정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이수-/를 설정할 수 있다. 한편 (8다)

는 이서면의 자료로서 복수 기저형 /위{ㅍ-ㄱ}/로 설정될 수 있다. 아-계 어미 결합형 ‘이꼬라’는 ‘이꾸+-아라’로 분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ㅅ-불규칙 용언 어간인 ‘잇-, 連’이 단일 기저형 /이꾸-/로 재구조화된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음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재구형 ‘\*니숙(또는 \*니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간말 자음과 어중 모음이 탈락하면 ‘닛-’이 가능하며, 어중 모음이 탈락하면 ‘닛ㄱ’이 되어 ‘닛ㄱ>닛ㄱ>닛>위>이꾸’ 정도의 과정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변화로 인하여 ‘이꾸-, 이끄-, 위-’ 등으로 변화하였다면 특정 지역에 방언형이 형성되어 분포할텐데 그렇지 않은 듯하다. ‘이꾸’와 유사한 활용형을 보이는 지역은, 《자료집》에 의하면 강원도 삼척 지역과 경북 달성, 경남 의령 지역에서 발견된다. 그들의 활용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9) 가. 삼척: 이꾸[HL], 이꺼라[HLL](잇-, 連)  
 나. 의령: 이꾸고[LHL], 이까서[LFL]  
 다. 달성: 이꾸고[LFL], 이새[LF], 이수코[LHL]

(9)는 ‘잇-, 連’에 대하여 (8가)와 비슷한 활용형을 보이는 지역으로서, (9가)는 강원도 삼척 지역의 활용형이고, (9나)는 경남 의령의 활용형이며, (9다)는 경북 달성 지역의 활용형이다. 패러다임 전체를 확인할 수 없어 기저형을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어간말 또는 어간 내에 음소 ‘ㄱ’이 존재하는 것은 확인 가능하다. 위 (8가, 나)의 기저형을 고려한다면 (9가)는 /위-/ 정도가 될 듯하고, (9나)는 /이꾸-/ 정도가 될 듯하며, (9다)는 /이꾸-/와 /이숭-/의 기저형에 관련된 두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이 음변화에 의해 기저형이 변한

것이 아니라면 재분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ㅅ-불규칙 활용 어간이 ‘ㅇ’ 발음을 지니게 될 경우, 자음 어미와 결합할 때 어미는 경음화 되어 ‘이꼬, 이찌 이떠라’(잇-, 繼), ‘나꼬, 나찌, 나떠라’(낫-, 愈) 등과 같은 활용형을 보인다. 자음 어미 특히 ‘ㄱ’로 시작하는 어미 ‘-고’와 결합할 때의 형태는 ‘이꼬’이며 이를 ‘위--+고’로 재분석하면 ‘위-’이 기저형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위-’이 아-계 어미와 결합하는 “이까(또는 ‘이꺼’)”를 ‘이끄--+아/어’ 또는 ‘이꾸--+아/어’로 재분석하게 된다면 기저형 /이꾸-/ 또는 /이끄-/가 가능할 듯하다. 다만, 자음 어미 결합형, 그 중에서도 어미 ‘-고’와의 결합형을 재분석한 것이 패러다임 전체에 확대되었다는 특수성이 문제로 남는다.

곽충구(1994)에 의하면 ‘시므/싫-’가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앞에서의 교체형인 ‘시므-’로 일차적인 단일화를 이룬 후 ‘싫-’으로 재구조화되었다고 보았으며 이때의 변화를 이단적인 변화로 보았다. 이렇듯이 자음 어미 앞의 교체형으로 단일화되는 것은 그 수가 적으며, 산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어의 ‘이꾸-’와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위-’ 등도 ‘ㄱ’로 시작하는 자음 어미와 결합하였을 때의 활용형을 재분석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서부와 동부에서 모두  $\Delta > \emptyset$ 의 변화를 겪은 ‘붓-, 腫’의 경우를 보자. 음변화는 동일하나 이후의 재분석 과정에서 차이가 나서 기저형의 차이를 가져온 경우이다.

(10)가. 북꼬[HL], 붙떠라[LHL], 부매[FL], 벌매[FL](붓-, 腫)(풍)

나. 벅꼬[HL], 벌떠라[LHL], 버매[FL], 벌매[FL](운)

(10)은 ‘붓-, 腫’의 활용형으로 (10가, 나)는 각각 청도의 서부와 동부의

자료이다. (10가)는 단일 기저형 /붕-/을 설정할 수 있고, (10나)는 단일 기저형 /병-/을 설정할 수 있다. 두 기저형 간의 대립은 어간 모음의 차이로 나타나는데, ‘우:어’의 대립이다. (10가)의 기저형은 △의 변화와 원순모음화 그리고 모음 어미 결합형의 어간을 ‘붕-’으로 재분석하여 형성된 것이다. (10나)의 기저형은 변화의 과정이 (10가)와 동일하나 재분석시 모음 어미 결합형의 어간 모음을 ‘우’가 아닌 ‘어’로 재분석함으로써 기저형이 ‘붕-’과 달리 ‘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그런데 ㅅ-불규칙 어간 중에서 (10)에 제시된 ‘붓-, 腫’과는 조금 다른 변화를 겪은 ‘붓-, 注’은 지역적인 차이가 (10)과 달리 나타난다. 풍각면과, 운문면의 활용형은 동일하고, 이서면의 활용형이 달리 나타난다.

- (11)가. 벽꼬[HL], 변떠래[LHL], 버매[FL], 버래[FL](붓-, 注)(풍, 운)  
나. 북꼬[HL], 불터래[LHL], 부매[FL], 부래[FL](이)

(11)은 ‘붓-, 注’의 활용형으로 (11가)는 청도의 서부와 동부의 자료이며, (11나)는 청도의 이서면의 자료이다. (11가)를 통해 풍각면과 운문면 모두 기저형은 단일 기저형 /병-/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기저형은 ‘△’의 음변화로 인해 불규칙적인 활용을 보이다가 모음 어미 결합형 ‘버매, 버래’를 ‘병--+어매’, ‘병--+어래’로 재분석하여 현재 ‘병-’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과 관련된 음변화가 있었고, 어간 모음과 관련된 재분석이 이어졌다. 그런데 (11나)의 자료는 (11가)와 다르다. (11나)의 기저형은 단일 기저형 /붕-/을 설정할 수 있다. 두 자료에서 기저형 간의 대립은 두 음소로 나타나는데, 자음은 후음 ‘ㅎ:ㅎ’의 대립이고, 모음은 ‘어:우’의 대립

10) 이러한 재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인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재분석이 두 번 적용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이다. (11나)의 기저형도 (11가)와 같은 음변화를 겪었으나 모음 어미 결합형을 재분석시 어간 발음을 후음 ‘ㅎ’으로 재분석한 것이다. 결국 ㅅ-불규칙 어간은 기본적으로 후음 발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고, 모음 어간의 변화는 지역에 따라 일정한 변화의 방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 3.3. ‘ㄷ’ 불규칙

ㄷ-불규칙 어간은 대부분 서부와 동부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주로 복수 기저형 어간으로 존재하는바, ‘눈-, 焦’의 활용형을 먼저 살펴보고, 기저형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깨닫-, 覺’에 대하여 살펴본다.

(12)눈떠래[RHL], 누리매[HLL], 누리도[HLL](눈-, 焦)(풍, 이, 운)

(12)는 ‘눈-, 焦’의 활용형을 제시한 것으로 풍각면, 이서면, 운문면에서 모두 동일한 활용형을 보인다. 활용형을 볼 때, 복수 기저형 /누(ㄷ-르)-/를 설정할 수 있을 듯하다. ‘눈-, 焦’은 후기 중세 국어 때에 불규칙적인 교체를 보였는데, 이 지역어에서는 지역적인 차이 없이 복수 기저형으로 존재한다.<sup>11)</sup>

ㄷ-불규칙 중에서 청도 지역 내에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어간에 ‘깨닫-, 覺’이 있다. 이 어간은 두 지역에서 각각 단일 기저형으로 존재한다.

(13)가. 깨다리고[LHLL], 깨다리매[LHLL], 깨다리라[LHLL](풍)

11) 동일한 ㄷ-불규칙 어간인 ‘싯-, 載’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경기, 충북, 경북, 경남에 걸쳐서 어간말 ‘ㄷㅇ’을 지닌 단일 기저형으로 존재하며, 충남, 전북, 전남과 경남의 서남부 일부(거창, 하동, 고성) 지역은 대체로 ‘ㅌㅇ’ 발음 어간으로 존재한다 (김세환 2012: 105).

## 나. 께달리고[LHLL], 께달리마[LHLL], 께달리라[LHLL](운)

(13가)는 풍각면의 자료이고, (13나)는 운문면의 자료이다. 먼저 (13가)를 보면 단일 기저형 /껴다리-/로 설정할 수 있다. ‘껴다리마, 께다리라’의 어간을 ‘껴다리-’로 재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전에 ‘르>리’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sup>12)</sup> (13나)는 (13가)의 상태에서 변화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패러다임 내에서 재분석과 그에 따른 평준화 등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자음어미, 모음어미 등과 결합한 활용형을 ‘껴달리-’와 어미로 분석해 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김정아(2008: 105)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간 일어난 유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음운론적 구조가 유사한 ‘달리고, 달리니, 달리도’, ‘후달리고, 후달리니, 후달리도’ 등 ‘Xlli-’의 음운 구조를 지닌 어간의 패러다임에 유추되어 재구조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껴달-’의 경우 동부의 운문면에서는 음변화와 재분석, 그리고 패러다임간 유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단일 기저형 /껴달리-/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 IV. 결론

지금까지 경북의 남쪽에 있는 청도군의 서부 풍각면과 동부 운문면의

12) 최명옥(1998 1: 126)에 의하면 동남방언의 상당 부분에 러-불규칙에 해당하는 ‘누르-, 黃’, ‘푸르-, 靑’가 단일 기저형 /누리-/ , /푸리-/로 재구조화되었다. ‘껴달-, 覺’의 경우, 풍각면에서는 이 러-불규칙이 단일화된 활용형과 유사하게 변하여 기저형도 이와 같이 /껴다리-/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누르-, 푸르-’의 경우는 자음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으나, ‘껴달-’의 경우는 모음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ㅂ, ㅅ, ㅌ’ 불규칙 어간 기저형의 지역적 차이와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청도군은 지역적으로 남북보다는 동서로 넓게 걸쳐 있어, 남북의 차이보다는 동서의 차이가 더 크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차이를 ‘ㅂ, ㅅ, ㅌ’ 불규칙 어간의 기저형 변화로 살펴보았다.

‘ㅂ’ 불규칙 어간은 대부분 /Xㅂ-/ 단일 기저형으로 존재하며 지역적 차이가 없다. 다만, ‘가깎-’의 경우는 서부에서 단일 기저형 /가죽-/으로, 동부에서 복수 기저형 /가차(ㅂ-우)-/로 존재한다. ‘ㅅ’ 불규칙 어간은 대부분 서부에서는 /Xㅅ-/ 단일 기저형으로 존재하고, 동부에서는 /Xㅌ-/ 단일 기저형으로 존재한다. 일부 어간은 다른 변화를 겪는바, ‘잇-, 繼’의 경우 서부에서는 단일 기저형 /이꾸-/ , 동부에서는 단일 기저형 /이수-/로 존재한다. /이꾸-/는 자음 어미 ‘-고’와의 결합형을 재분석한 것으로 보았다. ‘붓-, 注’의 경우, 서부에서는 /병-/ , 동부에서는 /뿡-/으로 존재하여, 어간 모음과 어간말 후음이 차이난다. ‘ㄷ’ 불규칙은 대부분 서부와 동부에서 동일하게, 복수 기저형 /X(ㄷ-르)-/로 존재하며, ‘깨닫-’의 경우에는 패러다임 간 유추로 인하여 서부에서는 /깨다리-/ , 동부에서는 /깨달리-/로 존재한다. 청도 지역어의 ‘ㅂ, ㅅ, ㅌ’ 불규칙 어간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ㅅ’ 불규칙 어간이 서부와 동부의 기저형 차이가 두드러지며, ‘ㅂ, ㄷ’ 불규칙의 경우 대체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개별 어간에 있어서는 양 지역에 차이를 일으키는 특수한 변화가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곽충구,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 1994ㄱ, 태학사.
- 곽충구, 『계합 내에서의 단일화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 『남천 박갑수 선생 화갑 기념 논문집』, 태학사, 1994ㄴ, pp.549-586.
- 구본관,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1998, 태학사.
- 권재선, 『청도방언의 모음체계 변천의 연구』, 『한국어문논집』 1, 한서대 한국어문연구소, 1981, pp.123-143.
- 김경아, 『패러다임 간의 유추에 따른 어간 재구조화』, 『어문연구』 36-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pp.103-129.
- 김세환, 『청송지역어 용언 어간의 통시적 변화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2.
- 김세환, 『경북 중부의 ‘ㄴ, ㄸ, ㄷ’ 불규칙 어간의 기저형 차이 - 의성군의 서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 『방언학』 23, 한국방언학회, 2016, pp.59-78.
- 송철의, 『파생어형성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38, 국어연구회, 1977.
- 신승원 외, 『경북 청도 지역어의 조사·연구』, 청도군, 2017.
- 이승재, 『재구조와 방언분화 -어중 ‘-ㅅ-’류 단어를 중심으로-』, 『국어학』 12, 국어학회, 1983, pp.213-234.[이병근·곽충구 편(1991)에 재수록]
- 임석규,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와 활용 패러다임』, 『형태론』 6-1, 박이정, 2004, pp.1-23.
- 최명옥, 『국어음운론과 자료』, 태학사, 1998ㄱ.
- 최명옥, 『한국어 방언연구의 실제』, 태학사, 1998ㄴ.
- 국립국어원,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200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방언자료집』 VIII(경상북도 편), 1989.

**Abstract**

The Study of p-, s-, and t-Irregular Stems  
in the Cheongdo Subdialect  
- Focused on Punggak-myeon and Unmun-myeon -

Kim, Se-hwan

This paper aims to study underlying forms of the so-called p, s, t-irregular stems in the Cheongdo subdialec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eastern and western areas in Cheongdo based on these irregular stems. In terms of irregular stems, the p-irregular stems exist in single underlying forms: /Xp-/ in both areas. However, s-irregular stems exist as the single underlying form /X?-/ in the western areas, and as the single underlying form /Xs-/ in the eastern areas. T-irregular stems mainly exist as the multiple underlying form, /X(t-li)-/, in both areas. Finally, the main differences in western and eastern areas are the underlying forms of s-irregular stems. For p-irregular, and t-irregular stems, there are no main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reas.

Key Word: Cheongdo Subdialect, p-irregular, s-irregular, t-irregular, multiple underlying form, irregular stem

김세환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shkim93@yu.ac.kr

이 논문은 2018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18년 6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6월 3일 게재 확정됨.